

No.13 - 산의 종교: 산악 신앙과 슈겐도

슈겐도(修驗道)는 고대 일본의 자연 숭배 사상에 불교와 도교 등이 융합된 종교로, 수행을 쓰는 산악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긴푸센지 절(金峯山寺)은 이러한 슈겐도의 근본도장(가장 중요한 수행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산을 부처나 신이 사는 장소로, 또는 신 그 자체로 여기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슈겐도에서는 엄격한 수행을 통해 죄악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엔노 교자(634~701)가 7 세기에 슈겐도를 창시한 이후부터 많은 산이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슈겐도의 일반적인 수행에서는 험준한 바위 밭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산속을 오랫동안 걷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겐리키(驗力)라고 부르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불교와 신도(神道)가 강제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일반적 이었던 것처럼 슈겐도에서는 부처와 신을 동등하게 숭배합니다. 슈겐도는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승려가 아니더라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엔노 교자는 출가하지 않고 평생동안 재가승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불법을 실천하고 자연에서 힘을 얻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슈겐도의 중심 이념이기도 합니다.